

제464회 시조 태사공 추향제 봉행

능동성역화 사업비 1억 기증한 권오록 고문 시조 태사공 초헌관으로 행공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조 태사공 묘소 및 남중공 단소에서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한 헌관과 제례위원 그리고 능곡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경자년(庚子年) 추향제가 봉행되었다.

이번 추향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에 맞춰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간소하게 봉행되었다. 능동재사 입구에서는 시도(時到)하는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온계로 체온을 체크하였고 손소독제까지 비치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했다.

차가운 날씨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권해욱 대중회 회장과 권숙동 수석부회장(안동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창 종파 파종회장, 권무탁 검교공파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영택 중운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등 7개 파 파종회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기성 대중회 이사, 권오상 대중회 총무국장, 권행한 안동권씨 종보 편집국장, 권오의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영길 전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구원장,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권갑현 전 중앙대학교 교수,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권남희 안동시의회 의원, 권동원 참의공종종 이사장과 임원, 권기형 능곡회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전원 당일 참석하였으며 추향제 전날 열린던 대당회는 생략되었다. 초헌관(수임首任)은 30일(월) 당일 오전 8시



30분에 능동재사(陵洞齋舍, 국가민속문화재 제183호)에 도착하여 추원루(追遠樓) 바로 앞에서 도포로 갈아입고 유건을 쓰는 등 의관을 정제하고 재실에 들어갔다.

10시에 권해욱 대중회 회장과 권오록 수임이 좌정한 가운데 분정에 들어갔다. 시조 태사공 참제분정(參祭分定)은 초헌관(初獻官)에는 권오록(權五鹿) 고문, 아헌관(亞獻官)에는 권숙동(權肅東) 수석부회장, 종헌관(終獻官)에는 권한수(權煥壽), 축(祝)에는 권영복(權永福), 찬자(贊者)에는 권용호(權容浩) 등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남중공 참제분정은 초헌관에는 권무탁(權武倬) 검교공파종회장, 아헌관에는

권영탁(權寧澤), 종헌관에는 권오창(權五昌), 축(祝)에는 권기욱(權奇郁), 찬자에는 권갑현(權甲鉉) 종보 편집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1시간에 걸친 분정례(分定禮)가 끝나자 11시에 참제원들은 능동재사 앞에 잠시 도열한 후 분정표와 능곡회(회장 권기형)에서 운송하는 제수(祭需)를 따라 일제히 시조 묘소로 향했다.

시조 묘소에서는 권용호 찬자의 홀기(笏記)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헌관들과 집사 그리고 참제원 전원은 제례 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추향제가 끝

나자 권해욱 대중회 회장과 헌관, 능곡회원 등을 비롯한 참제원들은 단제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참제원들은 시조 태사공 추향제를 마치고 남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12시 20분 경에 권갑현 찬자의 진행으로 남중공 향시를 차분하게 봉행하였다. 제례를 모두 마치자 능동재사로 이동하여 음복례를 하였고, 대중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중회에서는 점심을 먹고 귀가하는 참석자들에게 2021년 신축년(辛丑年) 달력과 타월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편집국장 권행한

권오록 고문, 부인 서봉숙 여사와 함께 시조 묘소 표지석에서 기념촬영

권오록 고문은 지난 2019년 대중회에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로 1억원을 기증(본보 2019년 10월 1일자)한 바 있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권오록 고문이 기증한 기금을 바탕으로 시조 묘소 집입로에 표지석을 새롭게 건립했다.

권오록 고문은 이번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초헌관으로 참제한 후 부인 서봉숙 여사와 “안동권씨 대중회 고문 권오록 근수(謹摺), “안동권씨 대중회장 권해욱 주관(主管)”이라고 새겨진 시조 묘소 표지석에서 권해욱 대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권해욱 회장, 권오록 고문, 서봉숙 여사(왼쪽부터)

11월 찬조금, 회비 납부 내역

〈찬조금〉

권철진(창원 권영달 고문의 자) 100,000

부회장

권혁홍((주)대양그룹 회장) 1,000,000
권동술 상임위원(합천) 1,000,000
권석호 상임위원(합천) 1,000,000
권영상 상임위원(여주) 1,000,000
권태호 상임위원(청주) 1,000,000
권오중 상임위원(안동) 1,000,000
권태복 상임위원(서울금천) 1,000,000
권영창 상임위원(영주) 1,000,000
권오강((주)동북아체인 대표) 1,000,000
권기욱(우평코리아 회장) 1,000,000
권기홍(군기검공파종회장) 1,000,000

이사

권광훈(청주) : 300,000
권형태(영주) : 300,000
권종태(서울중로) : 300,000
권영석(합천) : 300,000
권갑수(부산) : 300,000
권성일(대구) : 300,000
권경택(서울동대문) : 300,000

종무 위원

권영동(대구) : 200,000
권동현(안동) : 200,000
권대경(안동) : 200,000
권기탁(안동) : 200,000
권대인(청송) : 2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총 : 14,2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 15개 파(派)를 바로 알자

대중회에 자기가 어느 파(派)인지를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 온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어느 파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 둘째는 자기는 무슨 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파가 있는지 묻는 경우이다. 자기가 무슨 파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한 지파의 소종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100만 족친이 안동권씨 15개 파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다.

(관련 광고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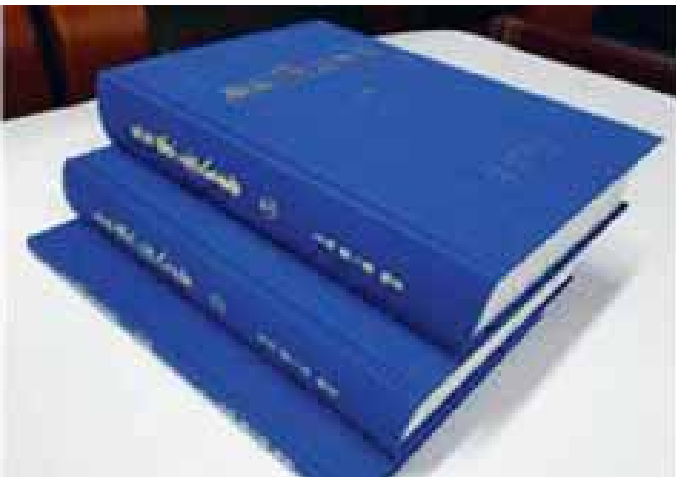
안동권씨는 1476년 한국에서 최초로 한 가문의 역사를 정리한 성화보(成化譜)를 발간한 전통과 역사가 빛나는 성씨이다. 성화보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안동권씨 족보는 타 성씨들의 표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권씨는 15개 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안동권문의 뼈대이자 정통성의 상징이다.

편집국장 권행한

校註 景岳全書 출간!

杏林楚人 螢雪寒苦20星霜에 완성한 金字塔 醫藥史上 가장 精確한 <景岳全書> 64권 출간!



全書의 該博한 내용으로 활용성이 우수하며 便覽性이 뛰어난 不朽의 決定版!!
漢醫學 研究家에게는 必須 指針書로서
韓醫學 入門者에게는 必用 教科書로서 大寶典!!
原典 精粹의 광범위한 傳授를 위한 파격적 보급 특가
最高級洋裝 上·下·附錄 3冊 全帙(국배판2272면) 정가: 180,000원
懸賞金: <景岳全書>原文(100萬字)중 校訂 一字當 10,000원 지급

〈漢文漢字便覽〉
각종 漢文原書 讀解에 필수 참고서



●虛詞精解 追從不許 勿驚 6천2백여 題字 收載
各種 漢韓大辭典 中韓辭典은 물론 우리의 口語에서도 採錄
●中國簡體字의 完壁한 가나다順, 劃順 總整理
●漢字의 製字原理 부수글자의 어원 갑골문자
정가 (46배판 422면) : 38,000원
《漢文漢字便覽》은 《景岳全書》는 물론 모든 漢文原書를 解讀할 수 있는 虛詞를 방대하게 收載함으로써 原文 理解의 집중이이고 열심이기 때문에 便宜上 <校註景岳全書>와 함께 공급합니다.
◇합계 218,000원

장계출판사 신간안내

東醫驗方續纂

大韓韓藥協會 學術委員會編
大韓韓藥協會 韓藥業士 畢生의 經驗祕方集
消滅 死藏위기의 1600여 祕方들을 採錄
최고급 양장 46배판 848쪽
정가 400,000원 → 70,000원·잔여 200권 선착순

景信醫方

景信 李忠憲 原作 長溪 權三壽 編著
辨證奇聞과 石室祕錄의 眞髓를 總整理
千古絶奇의 變證에 正答을 提示한 奇書
802要方을 證治別로 分類한 臨床便覽書
46배판 313쪽 정가 30,000원

醫窓涯編 近刊

杏林楚人 權三壽 編著
東洋醫籍의 解題와 序文 跋文의 完譯
古籍의 理解와 書誌學 研究의 筌蹄
기타 다수의 長溪逸稿 등 收載
46배판 473쪽 정가 30,000원